

##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강득구 국회의원실에서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사모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나다 순)와 함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온라인 설문조사는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운영의 정책 반영을 위해 귀하의 견해를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오직 정책 의견 수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응답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득구 국회의원실·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사모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나다 순)

※ 다음은 인적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귀하의 배경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위치

- ① 교사      ② 부장교사      ③ 수석교사      ④ 교감      ⑤ 교장  
⑥ 장학사·교육연구사      ⑦ 장학관·교육연구관      ⑧ 학부모  
⑨ 중학생      ⑩ 고등학생      ⑪ 학교 밖 학생  
⑫ 교육행정직원

(2) <선택> 근무 학교급 ((1) ①~⑦만 체크)

-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특수학교      ⑥ 기타

(4) <선택> 교육경력 ((1) ①~⑦만 체크)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25년 미만      ⑥ 25년 이상

(5) 17개 시도교육청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에 대한 요약입니다.

세부사업	사업별 추진 내용
스마트교실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에너지 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공간혁신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학교시설복합화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2.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질문 문항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그린스마트스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2	그린스마트스쿨은 기존의 학교 공간혁신 사업과 통합되어야 한다.					
3	그린스마트스쿨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은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 시(공사 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6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여 재정 건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7	그린스마트스쿨은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혁신동력이 있는 혁신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그린스마트스쿨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듯 학교단위가 아닌 학급이나 학년 단위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9	그린스마트스쿨은 교육자치(시·도교육청)와 일반자치(시·도청 등)가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10	그린스마트스쿨에서 ICT 기반 스마트 교실을 만들 시 한국형 LMS환경(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1	그린스마트스쿨에서 생태환경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12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시 생태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13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시 생태교육을 위한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4	그린스마트스쿨은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을 주어 시·도 특색에 맞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5	그린스마트스쿨은 교육부 관료 주도가 아닌, 교원·학생·학부모·외부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16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된 노후학교라는 획일적인 기준보다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주고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3.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BTL 방식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나 기관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10년 이상 공사비와 일정 이익(국채수익률+a)을 분할 상환 받는 민자유치 방식

(1) BTL 방식에 대해 학교나 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 그린스마트스쿨에서 BTL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3) ( ‘(2) ② 반대한다’ 선택자만 응답, 복수응답 가능) 그린스마트스쿨에서 BTL 방식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미래세대의 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다른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 ② 관계 업자들의 부조리가 많아진다.
- ③ 막대한 이자 발생으로 다음 세대·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④ 다른 공공기관은 모르겠지만, 학교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 ⑤ 학생·구성원 참여형 설계와는 결합되기 어렵다.
- ⑥ 학교의 디자인·설계·구조가 학생 교육과정과 어울리지 않는다.
- ⑦ 관리기간이 끝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 학교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
- ⑧ 관리주체와 사용자가 달라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⑨ 화려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 예산 부풀리기라는 의구심이 든다.
- ⑩ 잘 모르겠다.

(4) 그린스마트스쿨에서 BTL 방식을 대체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좋을까요?

- ① 국채발행 방식    ② 시·도교육청 채권발행 방식
- ③ 교직원공제회·경찰공제회·군인공제회 등의 투자 방식
- ④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투자 방식                ⑤ 국가주도 공모펀드투자 방식
- ⑥ 기타 (    )

4. <선택> 그린스마트스쿨 정책의 가장 기대되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5. <선택> 그린스마트스쿨 정책의 가장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6. <선택> 그린스마트스쿨 정책에서 가장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